

“런던으로 가니?”

드디어 올리버가 식사를 마치자 아이가 물었다.

“응.”

“지낼 곳은 있어?”

“아니.”

“돈은?”

“없어.”

아이가 휘파람을 불더니 큼직한 외투 소매가 허용하는 한 깊숙이 팔을 주머니에 넣었다.

“너는 런던에 사니?”

올리버가 물었다.

“응, 집에서 살 때는 그랬지.”

아이가 대답했다.

“오늘 밤 잘 곳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필요해.”

올리버가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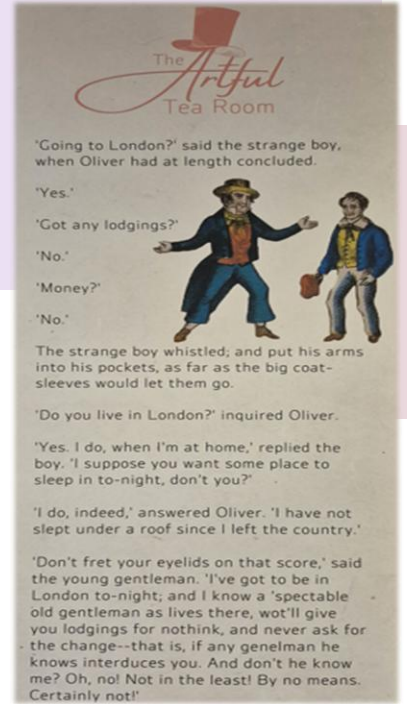
“고향을 떠난 뒤 지붕 밑에서 잔 적이 없어.”

“그건 걱정하지 마.”

아이가 말했다.

“오늘 밤 나도 런던으로 가야 해. 런던에 사시는 훌륭한 아저씨를 알게든. 그분이 공짜로 재워 주실 거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지 않으실 거야. 그 아저씨가 아는 사람이 너를 소개하면 말이야. 근데 그 아저씨가 나를 잊었을까? 아니지. 절대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절대로.”

출처: 찰스 디킨스, 『올리버 트위스트』, 강미경 옮김, 느낌이있는책, 2018, 100~101쪽.



△ 영국 런던의 찰스 디킨스 박물관 내부 카페의 벽면에 장식된 이 장면의 내용과 삽화.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찰스 디킨스와 『올리버 트위스트』

영국에서는 18세기 중반부터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났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도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1838년에 출간된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1812~1870)의 장편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한창 진행되던 런던을 배경으로 한다. 위에 제시된 부분은 올리버가 도제로 들어간 장의사의 집에서 학대를 당하다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런던으로 향하던 중, 길에서 우연히 어떤 아이(도제)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올리버는 이 아이를 따라갔다가 런던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들어서 또다시 고초를 겪게 된다.



△ 찰스 디킨스가 살던 집을 개조해 만든 박물관으로, 디킨스는 이 집에 살 때 『올리버 트위스트』를 집필했다.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올리버 트위스트』에는 당시 런던의 활기가 잘 묘사되어 있다. 디킨스는 가축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 아이들, 도둑이 한데 뒤섞여 있는 광경과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가축의 울음소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올리버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린다.

당시 런던은 그 어느 곳보다 활력이 넘쳤지만,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성장이 모두에게 풍요를 안겨 주지는 않았다. 구빈원(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고 노동을 요구했던 시설)에서 태어나 이름도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정해진 올리버 트위스트는 당시 영국 사회에서 빈민이 처한 어려움을 보여 주는 인물이다.

디킨스는 런던을 배경으로 도시의 활기와 어두운 이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린 작가이다. 『크리스마스 캐럴』, 『위대한 유산』, 『데이비드 코퍼필드』, 『두 도시 이야기』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어 있다.

런던에는 11세기경에 형성되어 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 있다. 버러 마켓(Borough Market)이 바로 그곳이다. 지금의 런던에는 템스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서른 개가 넘지만, 천여 년 전에는 런던 브리지(London Bridge) 하나뿐이었다. 템스강을 건너 런던의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기 위해 런던 브리지 주변을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 일대에 물건을 파는 상인이 모여들었고,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16~17세기에는 비누·가죽·도자기 등을 만들고 파는 장인과 상인, 농촌에서 가축이나 곡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19세기에는 철도가 놓여 농산물의 장거리 운송이 용이해짐에 따라 버러 마켓은 과일·채소 중심의 도매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을 파는 상점과 노점이 모여 있어 런던 시민과 여행자가 두루 즐겨 찾고 있다.

* 11세기 초 런던 브리지 남쪽에서 형성된 버러 마켓은 시장이 커지면서 주변이 혼잡해지자

1756년 사우스위크(Southwark)에 있는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다.

출처: 버러 마켓 웹사이트(boroughmarket.org.uk).

버러 마켓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진다.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 사람이 모여 시장이 형성되면, 물건을 운반하고 보관하거나, 상인과 손님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처럼 상업 활동이 집중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로써 사람이 또다시 모여 상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도시는 점차 커지게 된다.

지식과 정보의 공유 공간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도 활발히 공유된다.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나누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견이나 사상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훗날의 혁신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여러 세대의 철학자들이 광장에서 토론하며 지식과 사상을 발전시켰고,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도시 피렌체에서는 예술가와 학자, 기술자가 교류하면서 예술과 학문의 꽃을 피웠다. 산업 혁명 시기에 영국의 도시 버밍엄과 맨체스터에서는 기업가와 기술자, 노동자가 모여 지식과 기술을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교류는 생산 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 출처: 에드워드 글레이저, 『도시의 승리』, 이진원 옮김, 해냄, 2011, 49쪽, 113쪽.

현대의 도시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쉽게 교류할 수 있고, 직접 만나지 않아도 다양한 경로로 지식을 접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만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는 경제 활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업과 관련 인력이 가까이에 모여 있으면 서로 필요한 기술과 정보, 서비스 등을 주고받으며 생산 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사람이 가까이에 모여 교류하는 현상을 산업 집적이라고 한다.

예컨대, 런던과 싱가포르, 홍콩에는 금융 기업과 인력이 모여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는 자동차 산업,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에는 패션 산업 종사자들이 모여 일한다. 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와 인도의 뭄바이에는 영화 산업 관계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 우리나라 경기도의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정보 기술(IT) 분야의 기업과 연구소, 인력이 모여 있다.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 활발하게 협력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경쟁 과정에서 기술



△ 버러 마켓의 19세기 모습을 담은 1872년 목판화(Borough Market). 귀스타브 도레(Gustave Doré)가 그림을 그리고, 프랑수아 판네마케르(François Pannemaker)가 이 목판에 새겼다. 작품 속 유리나 철 구조물은 지금의 버러 마켓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London Museum

혁신을 이루어 생산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처럼,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활동할 때보다 가까이 모여 있을 때 커지는 이점을 집적 효과(agglomeration effect)라고 하는데, 이러한 집적 효과는 도시를 활기찬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1,780개 기업에서 8만 3,465명이 일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은 약 226조 원에 달한다.

출처: 판교 테크노밸리 웹사이트(pangyotechnovalley.org)

기회의 공간

이러한 도시에 사람이 더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일자리가 있는 도시에는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많다. 대학이나 교육 기관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 역량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도시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므로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도 풍부하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도시의 활력과 기회는 대중문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2020년에 방영된 드라마 〈스타트업〉은 서울을 배경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도전하는 모습을 그린다. 또한 2016년에 개봉된 영화 〈라라랜드〉는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배우 지망생과 재즈 피아니스트가 만나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도시의 비용

그러나 사람이 모여들면서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세계의 많은 대도시에서는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지기도 한다. 2024년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기능에 기반을 둔 도시권(FUA, Functional Urban Area)’ 대부분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대규모 FUA(인구 150만 명 이상)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6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간 규모 FUA(인구 25만 명 이상 150만 명 미만) 50%, 소규모 FUA(인구 10만 명 이상 25만 명 미만) 37%, 초소규모 FUA(인구 10만 명 미만) 16% 순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주택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출처: 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4*, 2024, p. 26. OECD는 공식적인 행정 구역보다는 도시와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능의 연계를 고려해 FUA라는 개념을 사용해 분석한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OECD 회원국들의 가구는 평균적으로 처분 가능 소득(disposable income, 세금이나 사회 보험료 등을 내고 난 다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으로, 가처분 소득이라고도 한다)의 약 20%를 주거비*****로 지출했다. 주거비 비중은 같은 국가 안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주거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평균 격차는 약 10%p였고, 콜롬비아, 영국, 미국에서는 이 격차가 15%p를 넘었다. 실제로 주거비 비중은 인구가 많이 모이는 대도시인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가 가장 높았고(35%), 이어서 런던(27%), 미국 캘리포니아주(24%) 순서로 높았다. 주거비가 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 식비나 교육비 등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사람이 밀집하면서 도시에서는 교통 혼잡이 자주 일어나고, 경제 활동이 집중되면서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이 모여 만들어 내는 도시의 이점 뒤에는 이처럼 그에 따르는 비용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 주거비는 주택 담보 대출 상환금과 임대료, 수도·전기·가스 요금, 가구 구매 비용과 가정용 설비 비용 등 주택 유지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괄한다.

한편 기업과 사람이 도시에 몰린다는 것은 지방에서 기업과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청년층을 비롯한 생산 연령 인구(보통 15~64세 인구를 의미한다)가 떠나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생산과 소비의 기반이 약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구가 줄면 학교나 병원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이 유지되기 어려워지는데, 이는 다시 사람들을 지방에서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각 지방 자치 단체는 일자리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분주히 내놓고 있다. 지금의 움직임은 앞으로 사람들의 선택, 그리고 도시와 지방의 모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탐구 질문

1.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 ①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보다 다른 상인에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시장 ()
 - ② 특정 분야의 기업과 인력이 가까이에 모여 교류하는 현상 ()
 - ③ 사람,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가 가까이에 모여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
 - ④ 가구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 보험료 등을 먼저 내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 ()
 - ⑤ 인구 감소로 지방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표현한 용어 ()

2. 본문을 참고해 사람들이 가까이에 모여 교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빈칸을 채워 보세요.

사람들이 가까이 모임. → 교류가 (①) → 지식과 (②) 공유됨.
→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남. → (③)과 발전으로 이어짐.

3. 본문에 언급된 도시와, 그 도시에서 발달한 산업을 화살표로 연결해 보세요.

런던	•	•	패션 산업
디트로이트	•	•	금융 산업
밀라노	•	•	자동차 산업

4. 본문을 참고해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 ① 사람과 기업이 가까이 모여 있으면 흩어져 있을 때보다 어떤 점이 유리할지 설명해 보자.
()
- ② 사람들이 모여면서 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보자.
()
- ③ 생산 연령 인구가 도시로 떠난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보자.
()

5. 아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 ① 도시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그에 따르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 ② 미래에 내가 살 곳을 선택할 때 나는 어떤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까?
()

6.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도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 형태로 적어 보세요. 이 질문들 중 하나를 선택해 조사해 보세요.

- ① ()
- ② ()
- ③ ()
- 



본문 내용 보충 자료

1. 산업 집적과 산업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산업 집적지)란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 기관 등이 가까이 모여 서로 교류하며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기업 간에 기술과 정보가 빠르게 교류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쉬워지며, 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개별 기업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기업 간 공동 연구 개발(R&D)도 활발해진다. 해당 지역에 동일 업종의 기업이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 현실에서는 산업 발전,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이처럼 산업 클러스터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과 기업, 연구 기관 등의 상호 작용과 정부의 연구 개발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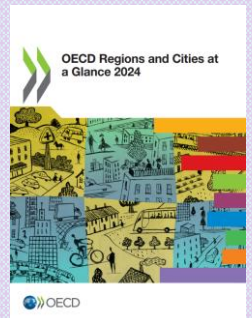
한편 특정 지역으로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지가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인접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지역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 OECD가 살펴본 세계의 지역

‘본문’에서는 도시의 특징과 도시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제는 ‘본문’에서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4』는 OECD가 회원국과 가입 협상국의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 성장, 노동 시장, 기후 위기 대응, 삶의 기준과 기회의 평등 등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여기서 지역(region)은 수도권과 대비되는 의미의 ‘지방’이 아니라 한 나라 안의 도시와 촌락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음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오늘날 도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특징을 소개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 살펴보면서 지역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영역	내용
노동 생산성, 국제 무역, 혁신	2022년 조사 대상 국가들의 노동 생산성(노동자 한 명이 주어진 시간 동안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가장 낮은 지역의 두 배 수준이었는데, 콜롬비아, 멕시코, 루마니아 등에서는 지역 간 노동 생산성 격차가 네 배 이상이었다. 국제 무역 역시 한 국가 내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2022년 조사 대상 298개 지역 가운데 약 20%가 전체 수출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국제 무역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혁신의 지표인 특허 출원(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발명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국가에 공식적으로 권리를 신청하는 절차) 활동은 도시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 지역이 특허 출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5%에서 2022년 90%로 상승해 특허 출원 활동이 대도시 지역에 더욱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6쪽에서 계속)



2. OECD가 살펴본 세계의 지역

영역	내용
재택근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모든 지역에서 재택근무가 증가했는데, 특히 도시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팬데믹 이전에도 유럽의 도시들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 재택근무자의 비중이 높았다). 팬데믹 종료 후 재택근무자 비중은 정점에서 하락했지만, 근무 시간의 절반 미만을 재택근무로 하는 간헐적(occasional) 재택근무는 증가했다. 즉, 직장에 출근해 근무하는 방식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혼합형 근무(hybrid work)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재택근무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2022년에 도시 근로자의 29%가 재택근무를 한 반면, 소도시(towns) 근로자의 21%, 촌락 지역(rural areas) 근로자의 18%가 재택근무를 했다. 2022년에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재택근무자 비중은 수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수도에서 근로자의 32%가 재택근무를 한 반면, 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18%가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의 발달로 장소의 제약이 줄어들었음에도 재택근무는 큰 도시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제로 (net zero)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으로 524억 톤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는 1990년보다 61% 많은 수준이다. 많은 OECD 회원국이 넷제로 즉,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추진해 왔다. OECD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그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달랐다. 2010~2022년에 대도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8.4% 감소했고, 중간 규모 및 대규모 FUA**에 가까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8% 줄었다. 반면 FUA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1% 감소하는 데 그쳤다. *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동일하게 만들어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탄소 중립이라고 한다. ** FUA는 '본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기능에 기반을 둔 도시권'을 의미하며, OECD가 지역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단위이다. 이는 도시의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은, 농업과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동 거리가 긴 경우가 많아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 이 보고서는 2005년부터 2년 주기로 발간되고 있다. 따라서 학습이나 수업 시점에 OECD 웹사이트(www.oecd.org)에서 최신 연도의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탐구 질문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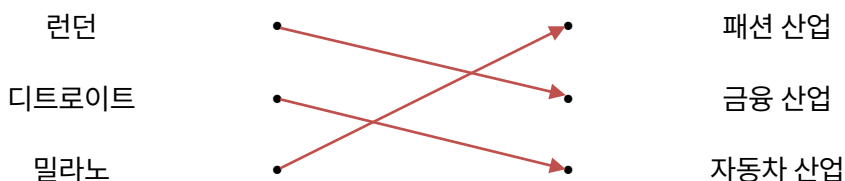
1.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① 도매 시장 ② 산업 집적 ③ 집적 효과 ④ 처분 가능 소득(가처분 소득) ⑤ 지방 소멸

2. 본문을 참고해 사람들이 가까이에 모여 교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빈칸을 채워 보세요.

사람들이 가까이에 모임. → 교류가 (① '활발해짐.', '늘어남.' 등) → 지식과 (② '정보가', '생각이' 등) 공유됨.
→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남. → (③ 혁신)과 발전으로 이어짐.

3. 본문에 언급된 도시와, 그 도시에서 발달한 산업을 화살표로 연결해 보세요.



4. 본문을 참고해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① 사람과 기업이 가까이에 모여 있으면 흩어져 있을 때보다 어떤 점이 유리할지 설명해 보자.

(예시: 사람과 기업이 가까이에 모여 있으면 필요한 기술과 정보, 서비스 등을 쉽게 주고받으며 생산 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산업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협력하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서로 경쟁하며 기술 혁신을 이룰 수도 있다.)

② 사람들이 모이면서 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보자.

(예시: 사람이 많이 모여 살 곳이 부족해지면서 주택 가격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거비가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다른 목적으로 써야 하는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또한 사람이 모이면서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경제 활동이 집중되어 대기 오염 등이 심화할 수 있다.)

③ 생산 연령 인구가 도시로 떠난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보자.

(예시: 일할 사람이 줄면서 지방의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과 소비 기반이 약화하는 곳들이 늘어나면서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각 지방 자치 단체는 청년층을 비롯한 생산 가능 연령 인구를 끌어들이 대책을 마련해 펼치고 있다.)

5. 아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① 도시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그에 따르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학생들은 도시에서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맞는 일을 선택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대학이나 교육 기관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가 쉽다는 점을 편익으로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도 도시의 편익이 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은 높은 주거비와 교통 혼잡 등 도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도시에 사는 것의 편익과 비용을 함께 살펴보면 사람들이 여러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도시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② 미래에 내가 살 곳을 선택할 때 나는 어떤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까?

➢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서로 다르므로 다양한 응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판단 기준은 일자리와 소득, 생활 편의 시설, 문화적 다양성, 자연환경 등 학생마다 다를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탐구 질문 해결

6.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도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 형태로 적어 보세요. 이 질문들 중 하나를 선택해 조사해 보세요.

-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든 질문을 바탕으로 함께 자료를 조사하거나 토론하는 활동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다. 탐구 과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의 방향은 학생마다 다를 것이다. 같은 질문에서 출발하더라도 각자의 관심과 탐구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탐구가 질문에서 지나치게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교사가 적절한 질문이나 피드백으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 다음은 학생들의 탐구를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의 예이다. 학생들이 질문 만들기를 어려워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자신의 관심에 따라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작은 궁금증이라도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며, 서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흥미가 높아질 수 있다.
 - 세계의 도시에 관심이 생겼다면?
 - ✓ 내가 가 보고 싶은 도시에는 어떤 유명한 장소나 문화가 있을까?
 - ✓ 특정 산업이 발달한 도시는 어디이고, 왜 발달했을까?
 - 도시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면?
 - ✓ (도시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그 도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 ✓ 해결해 보고 싶은 도시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완화할 수 있을까?
 - 기술 발전과 도시의 관계에 관심이 생겼다면?
 - ✓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 기업과 사람이 도시에 모이지 않게 될까?
 - ✓ 기술의 발달로 장소의 제약이 줄었는데도 재택근무가 도시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위의 예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다음 기관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자료가 영어로 제공되는 경우, 웹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이나 생성형 AI를 활용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unhabitat.org): 유엔 인간정주계획 또는 인간거주계획이라고도 불린다. 주거, 도시화, 도시 재생 등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이다. 세계 각지의 도시화 현황과 도시 문제 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ww.oecd.org): ‘본문’과 ‘본문 내용 보충 자료’에서 활용된 『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와 같은 각국의 지역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찾을 수 있다.
 - 국가통계포털(KOSIS, kosis.kr): 우리나라의 인구, 인구 이동, 주택, 지역별 통계 등을 검색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 웹사이트: 서울특별시청(www.seoul.go.kr), 부산광역시청(www.busan.go.kr), 경기도청(www.gg.go.kr) 등 지방 정부의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정책을 찾아볼 수 있다. 지방 자치 단체별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국토연구원(krihs.re.kr): 도시 계획, 주택 정책 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찾을 수 있다.

교육과정 연계

❖ 이 자료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다양한 과목에 접목할 수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통합사회』, 『경제』, 『도시의 미래 탐구』 등의 성취기준과 연계해 수업을 설계하고자 할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성취기준	활용 방향(예시)	탐구 질문(예시)
■ 생활 공간과 사회 [10통사1-05-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10통사1-05-02] 교통·통신 및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 삶의 공간, 도시 [12도탐01-02] 도시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를 비교하고, 내가 사는 도시의 발달 과정을 탐구한다.	도시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도시의 발달 과정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탐구할 수 있다.	• 산업화와 도시화는 사람들의 생활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 산업화는 도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을까? •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
■ 경제학과 경제 문제 [12경제01-03]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하고,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과 한계 분석을 이용한 의사결정 능력을 계발한다.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도시를 선택하는 이유를 탐구할 수 있다.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해 미래에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는 상황을 탐색할 수 있다.	• 도시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도시에 살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내가 앞으로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될까?
■ 미시 경제 [12경제02-01]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균형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시장에 적용한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주택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구할 수 있다.	• 주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 같은 도시 안에서도 주택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 어떻게 하면 도시의 주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까?
■ 변화하는 도시 [12도탐02-03] 서비스업의 성장과 소비주의 심화가 도시 경제와 도시의 경관, 생활 양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12도탐02-04] 첨단 산업과 모빌리티의 발달이 도시의 성장과 쇠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출현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를 사례로 살고 싶은 도시의 미래 모습을 예측한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소비 방식의 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도시의 성장과 쇠퇴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앞으로 도시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탐색할 수 있다.	• 소비의 변화는 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도시의 성장과 쇠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도시와 지방의 차이가 사라질까?
■ 삶의 공간, 도시 [12도탐01-03]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사례와 특징을 조사한다. ■ 도시의 미래 [12도탐04-01]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이 높은 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토의하고 이와 관련한 도시 계획 및 도시 혁신 사례를 탐구한다.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 도시 문제를 살펴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탐색할 수 있다. 나아가 교통·환경 등의 도시 문제를 개선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 도시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지속 가능하면서 회복력이 있는 도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의 『질문하는 학생들: 경제로 읽는 우리의 삶』은 지문을 읽으며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질문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개발된 청소년 경제교육 시리즈입니다.
- 이 시리즈의 자료는 ‘들어가며’, ‘본문’, ‘탐구 질문’, ‘본문 내용 보충 자료’, ‘탐구 질문 해설’, ‘교육과정 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의 목적, 학생의 이해 수준, 교수·학습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거나, 내용이나 활동을 추가하는 등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거나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조사와 보고서 작성, 발표 등의 연계 활동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들어가며’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학생들이 ‘본문’에서 전개될 내용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문’과 관련된 사례나 이야기가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됩니다.
 - ‘본문’은 국내외에서 실제 일어난 경제적 사건이나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을 소재로 그 배경이나 원인,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 ‘탐구 질문’은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에서 시작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문항으로 이어지며, 마지막에는 학생이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확장됩니다.
 - ‘본문 내용 보충 자료’에는 본문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배포하거나, 수업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탐구 질문 해설’에는 정답, 예시 답안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열린 문항의 경우, 예시 답안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탐구의 범위와 깊이를 점차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교육과정 연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관련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활용 방향(예시), 탐구 질문(예시)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업 설계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들어가며’에 포함된 『올리버 트위스트』의 내용은 출판사 느낌이있는책으로부터, ‘본문’에 포함된 목판화 〈Borough Market〉은 런던 박물관(London Museum)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인용·사용하였습니다.
- 이 시리즈의 [시즌 1] 자료는 2026년 9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월 1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웹사이트(eiec.kdi.re.kr), 재정경제부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econedu.go.kr)의 KDI 채널(크디콘 경제)에 게시됩니다.
- 출력할 때는 ‘용지 크기에 맞춤’으로 설정해 주세요.
- 자기 주도 학습 및 수업 목적 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문의나 제안 사항, 활용 후기를 sslee@kdi.re.kr로 보내 주시면 자료 개발과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는 왜 사람을 끌어들이까?」는 『질문하는 학생들: 경제로 읽는 우리의 삶』 [시즌 1]의 2호 자료(2026년 10월 공개)로, 박용호 의정부고등학교 선생님, 엄송희 소하고등학교 선생님, 이진아 전주신흥고등학교 선생님(이상 가나다순)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되었습니다.